

한국군 EOD 역사(略史) I



대한민국 폭발물 기술자 협회 **고 세 현**

현) 대한민국 폭발물 기술자 협회 이사
 현) (주)한화 방산본부 생산품질관리팀 부장
 전) 3군 사령부 처리통제장교
 전) 제72보병사단 탄약장교, 제25사단 72연대 병기관
 전) 탄약지원사령부 기능시험반 시험담당

1. 개 요

근대사회로 이끈 3대 발명품의 하나인 화약이 수백 년 동안 전쟁에 유용한 폭탄류로 발전하면서 불발탄 또는 최근의 IED 형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한 임무로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용감한 군인정신을 기반으로 갑옷류를 입고 곡괭이 또는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폭장치를 제거하던 형태에서 현대에는 첨단 슈트와 처리 로봇 등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어 EOD 요원의 안전성 강화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처리기술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평시 대테러 및 전투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원중의 하나인 EOD에 대하여 한국군은 언제 창설되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창간호에서는 육군 EOD 역사(略史)부터 먼저 다루고 이후 해·공군 및 각 기관의 EOD 역사(略史)를 시리즈로 다루기로 하겠다.

2. 육군 EOD 역사

2.1. 처리반 창설기(1950 ~ 1953년)

육군 처리반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초부터 1953년 1월까지 1·2군사령부 예속부대로 총 9개 반이 창설되어 운용되었다. 1군사령부 예하에는 6개 처리반(61, 62, 63, 65, 66, 67처리반)이 주 전장(戰場) 지역에서 처리 임무를 수행하였고, 2군사령부 예하에는 3개 처리반(561, 562, 563처리반)이 후방지역의 안정유지를 통해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창설된 9개 처리반은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훈련 속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는 토대가 되었다.

2.2. 휴전 후 ~ 1970년대

휴전 후에는 군사령부에서 예하 처리반을 조정 통제할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4년에 원주에 있던 1군 사령부에 소령급 반장, 준위급 통제장교, 통제부사관, 통제병, 운전병 등 9명으로 509 처리통제반이 먼저 편성되었고, 이어서 1955년에 대구에 있던 2군사령부에 동일한 조직 규모로 515처리통제반이 편성되었다.

1·2군사령부 처리통제반 편성 이후 9개 처리반에 대한 책임지역 부여와 함께 1군의 2개 처리반을 2군으로 예속 변경 하였다. 먼저, 1군사령부 예하 4개 처리반 중에서 61처리반은 3군단을, 62처리반은 2군단을, 63처리반은 5군단을, 65처리반은 1군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66·67처리반은 2군 사령부로 예속변경 되었다. 2군사령부의 예하 기존 3개 처리반 중에서 561처리반은 전라도 지역을, 562처리반은 경북 및 강원도 지역을, 563처리반은 충청도 지역을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되고, 1군 사령부에서 예속 변경된 2개 처리반 중에서 66처리반은 수도권 및 경기도를 67처리반은 경남 지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2.3. 1970년 ~ 현재

1970년 이후 변화된 주요 모습은 군사령부의 처리통제반 편성 조정과 3군사령부와 탄약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른 예속변경 및 처리반의 명칭 변경 등이 있었다.

1군사령부 509처리통제반은 1954년에 편성된 후 1967년 9월에 전시부대로 조정되어 평시에는 운용하지 않다가 2004년에 3군사령부, 2005년 1군사령부에 처리통제장교 각 1명씩 편성하여 운용되었다. 2018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된 후에는 소령급 처리통제장교 1명으로 조정되고, 2007년 탄약지원사령부에도 준위급 처리통제장교 1명이 편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군사령부 515통제반은 1967년 9월에 해체 및 전시부대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군사령부 및 군단 탄약대대가 창설되면서 1969년 9월부터 처리반 명칭과 예속변경이 되었는데 1군의 61처리반은 59탄약대대 처리반으로, 62처리반은 52탄약대대 처리반으로, 63·65처리반은 56·51탄약대대 처리반으로 명칭 변경 및 3군으로 예속변경 되었으며 2군의 561·562·563·67처리반은 탄약지원사령부 예하 4개 탄약창으로 조정되고 66처리반은 50탄약대대로 명칭 변경 및 1군에서 3군으로 예속변경 되었다.

이후 1·3군 예하에 1980년 4월~1990년 12월까지 53·55·57·58탄약대대 처리반을 신편 하였고, 탄약지원사령부 예하에는 1973년 6월~1991년 12월까지 4개 탄약창에 처리반이 신편 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2.4. 해외파병(1965 ~ 현재)

첫 해외파병은 월남전으로 1965년 파병 초기부터 1973년 파병 철수 때까지 102탄약중대와 53탄약중대에서 각 6명씩 2개 처리반이 맹호부대와 백마부대를 지원 후 해체 되었으며, 이후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부대(2003년 5월~2004년 4월) 작전과에 육군과 공군 혼성으로 6명이 편성되어 달리공항에 위치하여 지원하였으며, 자이툰사단(2004년 8월~2008년 12월)에서는 민사여단 EOD 소대에 육군과 공군 혼성으로 12명을 편성 아르빌에 위치하여 지원하였으며,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2007. 7월~현재) 때에는 육군 5명이 편성되어 티르에 위치하여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2.5. 폭발물처리 휘장

EOD 휘장은 2001년 9월에 3군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폭발물 처리 휘장 부착” 건의 후 2002년 3월에 참모총장 결재(복제발전 MASTER PLAN)와 2002년 12월에 국방부장관 결재(군인복제 제정 결과 시달) 후 2004년 6월에 휘장 3종이 군수계통으로 조달 납품되어 부착 활용하고 있으며 휘장의 구성 및 의미는 아래표와 같다.

	기본장	숙련장	완숙장
구 분			
수여대상	기본교육 4주이상 수료자	기본교육 수료 후 5년 이상 임무수행	기본교육 수료 후 15년 이상 임무수행

※ 폭탄(폭발물), 태극 문양(대한민국), 방패(책임지역 안전처리), 번개(폭발되는 강력한 이미지), 월계관(병기병과 최고의 명예), 황금별(EOD 기술의 최고 정점에 도달한 것에 대한 명예)

4. 결 언

육군 EOD는 한국전쟁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임무 완수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창설된 이후 각종 대테러 작전 수행과 GOP작전, 국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회의,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경기 경호작전을 포함하여 세계 분쟁지역의 위험속으로 파병되어 남다른 능력과 책임감으로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으며, 여러번의 국제회의 지원 및 해외파병 등을 거치면서 보유중인 처리장비와 물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한 기술 능력과 더불어 장비·물자의 세대교체 및 충분한 확보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더불어 군 EOD 전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제대편성 등 발전시킬 사항이 많다고 생각되며 주요 전투현장의 핵심 전투원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